

文 “이재명 중심 민생경제 해결 노력...민주주의 후퇴 안 돼”

민주 지도부 평산마을 사저 예방 文 “이재명 중심으로 민생 노력” “민주주의 절대 후퇴해선 안 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생경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며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2일 오후 이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29일 당대표 취임 후에도 문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

이날 예방엔 이 대표 외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낮 12시3분께 들어서 비공개 오찬 겸 만남 후 오후 1시43분께 나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평산문 전 대통령 내의를 찾아뵙고 신년 인사를 드린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먼저 찾아준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 덕담했고 민주당이 잘 해 국민에 희망이 되는,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면담 과정에서 현안 관련 대화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민생경제, 안보 불안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를 향한 최근 정부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

해 “요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취지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또 “요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안보 불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나아가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선 “그 부분을 딱 짚어 말한 건 아니다”라고 안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 또한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해선 안 된다는 말을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같이, 같은 취지



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말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날 오찬은 평양식 온반에 막걸리 반주로 이뤄졌다고 한다. 온반은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전해진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 사저 마당

에서 기념사진 촬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이 사저를 드나드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이 대표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이슬기자

민주당 광주·전남도당, 5·18 참배 “민생 살피고, 檢 독재 막겠다”

국회의원·지방의원·당직자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직자와 민주당 소속 국회·지방의원 등 100여 명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도당 당직자와 민주당 소속 국회·지방의원들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했다.

이날 광주시당에서는 이병훈 시장위원장(동남을)을 비롯,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민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핵심당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과 참배단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5·18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으며, 현화와 분향을 마친 뒤 경건한 마음으로 광주정신의 항구적 계승과 민생쟁기기를 다짐했다.

참배 후 진행된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서는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고문단 등의 신년인사와 덕담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때마다 민주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며 “우리에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고 검찰독재 시도를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광주정신 계승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 중심 민주당으로 환골탈태 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에서는 신정훈 도당위원장(나주·화순)을 포함해 이계호,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김원이, 김희재, 윤재갑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참배 후 5·18민주묘지 민주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과 대북 강경 발언에 따른 한반도 위기 초래를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위기의 시대, 우리가 힘을 모아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민주, 尹 대북 강경 발언에 강력 ‘비판’

“자칫 北 오판 부를 수 있는 위험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도발과 현실화되는 북핵 위협 해법이 전쟁일 순 없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방부 차원의 대북 강경 발언을 언급하고 “북한 도발에서 비롯된 말이라 해도 전쟁은 함부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대치를 더 첨예하게 만들고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지전조차 인명 피해를 각오해야 하고 IMF 위기에 비견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크나큰 리스크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싸울 준비가 돼 있으나, ‘서울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리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전쟁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나”라며 “군에 몸담은 적도,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발언을 멈추라”고 했다.

또 “안보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리는 안보 정국으로 몰아가려 하지 말라”며 “말폭탄으로 끝낼 수 있으리라 착각 말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며 북한 도발과 위협을 평화적으로 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